

대학가 소식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왼쪽)과 이성환 해군교육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4월 30일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해군교육사령부 사이버방호 교육 등 MOU

고려대학교는 정보보호대학원(원장 이상진)과 해군 교육사령부(사령관 중앙 이성환)와 지난 30일 사이버방호 분야 교육발전과 정보보호 분야 최신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이버방호 분야 교육을 위한 최신 교육자료를 공동연구 범위 내에서 상호 지원하고, 제공받은 교육 콘텐츠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장병 정보보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강연과 세미나, 사이버방호 분야 교육을 지원하고, 원격화상 교육체계를 이용한 전문가 강의를 제공한다.

동국대 오늘 개교 113주년 기념식

동국대학교는 2일 오전 교내 분관 중강당에서 개교 113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동국대는 이날 기념식 1부에서 동국대의 새 비전 '에너지이즈 동국(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건축이념 ▲교육공헌 ▲연구공헌 ▲산학협력 ▲지속경영 등의 5개 영역에서 총 28개 과제 64개 사업을 제시한다

숙명여대 김부겸 전 행정부 장관 초청 강연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달 30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도서관 미래를 디자인하다' 특강 시리즈 일환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로운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안했다.

이날 특강에는 숙명여대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강 이후에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캐서린 애셔 교수 등 초청 강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 3일 오전 서울캠퍼스 본관 330호에서 미네소타대학교 프레데릭 애셔 교수, 캐서린 애셔 교수를 초청해 각각 '지역학: 그 역사와 논쟁', '인도와 세계, 타즈 마할을 상상하다'를 주제로 해외저명학자 특강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프레데릭 애셔 교수는 미국인도학연구소와 국립미술사위원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인도불교미술사와 인도양 문명교류사 권위자다. 캐서린 애셔 교수는 국제대학에 협력회장과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인도 이슬람 미술 전문가다.

/한용수 기자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수학·탐구 선택과목 지정

문·이과 통합 '유명무실'... 학생 혼란 야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문·이과 사실상 구분 선발

現 고1, 고2·고3으로 진학 시 대학 수능반영방법 확인해야

문이과 통합교육을 위해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이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실시되지만,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열 모집단위 신입생 선발시 수능 선택 영역에서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를, 과학 탐구를 지정해 고교 교육과 대입 수능이 엇박자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1일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전날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계열별 수능 선택 영역을 보면, 자연계열 모집단위 수능 선택 영역으로 탐구 영역에서는 과탐을, 수학 선택과목으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지정했다.

올해 고1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 통합 공통과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고2부터는 선택 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학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거나, 수학 선택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문이과 통합교육을 하자는 취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출제되지만, 서울대 등 주요대학들의 자연계열 신입생 모집시 수학 미적분과 기하, 과학탐구를 선택하도록 해 학교 교육과 수능시험, 대입의 엇박자가 예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수능 역시 문이과 공통형으로 바뀐다. 국어가 공통(독서, 문학)과 선택(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수학은 공통(수학I, 수학II)과 선택(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택1)으로 바뀌고,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는 9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 중 택2로 실시된다.

하지만 주요대학들이 자연계열 신입생 선발시 수능 과목을 자연계열 과목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권 수험생들을 위주로 학교 수업과 대입 준비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의 2022학년도 수능 응시 영역을 보면, 인문계열 모집단위(유형

I)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을, 자연계열 모집단위(유형II)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과탐)을 응시하도록 했다.

인문계열의 경우 수학 선택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기하 중 택1할 수 있고 탐구영역에서도 사탐이나 과탐에서 택2하도록 하는 등 제한이 없다. 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1하도록 했고, 탐구영역 선택에서도 과학탐구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I+II 또는 II+II를 응시해야 지원할 수 있다.

서울대를 비롯해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대학들 역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에서는 과학탐구(2과목)를 지정해 이들 대학에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은 문이과 통합교육이나 문이과 통합형 수능 출제에도 불구하고 이과유형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은 평가이사는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맞춰 실시되고 고교 교육과정도 통합형으로 설계돼 있다고 해도 대학 입시에서 주요 대학들이 현재와 같이 문이과를 사실상 구분해 선발하는 경우 수능 시험이 바뀌다고 해도 문이과 구분은 여전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에 지원하려는 올해 고1 학생들은 고2와 고3에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을 할 때, 지원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오종은 평가이사는 "입시의 큰 틀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정시 모집과 수시가 여전히 대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1과 고2까지는 학교 내신에 충실하고, 고3 때는 학생부 내신 정도에 따라 수시에 집중할지, 정시 수능 중심으로 대비할지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양대에리카·부경대에 기업·연구소 들어선다

'대학 산학협력단지'로 선정 11대 1 경쟁률, 지속가능성 등 평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부경대학교가 교육부 '대학 산학협력단지'로 선정됐다. 두 대학 기존 유류 시설과 공간이 리모델링돼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서고 창업 지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부경대학교를 신규로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학 산학협력단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두 대학에는 올해부터 3년간 각 20억원 내외가 지원되고, 이후 2년간 10억원씩 투입돼 총 5

년간 사업이 진행된다. 예산의 10%는 대학이 대응투자해야 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지 사업은 캠퍼스 유류부지나 인근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과 연구소를 입주시키는 캠퍼스 혁신파크와 달리 대학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단기간에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따라 두 대학내 유류시설이 리모델링 되고 기업 연구소 입주시설, 공동연구시설, 공동활용 부대시설, 창업지원시설(비즈니스랩) 등이 집적 배치되고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역량 강화와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강화된다.

또 협력단지관리위원회와 산학연

자문단 등이 구성돼 대학-지자체-입주기업(연구소) 간 소통 활성화와 실질적 상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외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23개 대학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대학 선정에는 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대학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대학을 정했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한국형 유니콘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상명대 동문교수들, 재학생 61명에 장학금 4600만원

상명대학교는 동문교수들이 지난달 30일 서울캠퍼스미래백년관에서 '2019학년도 제 8기 제자사랑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동문교수들이 선정한 61명의 학생에게 4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올해 8회째를 맞는 동문교수들의 제자사랑 후배사랑 장학금에는 현재 46명의 동문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50명의 재학생에게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학생 390명에게 총 3억



상명대학교 동문교수들이 재학생 61명을 선정해 장학금 4600만원을 전달했다. /상명대학교

18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동문교수회장인 유지현 교수는 "제자를 향한 교수들의 작은 정성을 받아

학생들이 상명의 이름을 빛내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경력직 채용시 선호 요인 '같은 직무 오랜경험' 1위

84% "한 곳서 1년 이하 근속 기피"

인사담당자들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요인으로 '같은 직무에서 오래도록 근무한 경력'을 꼽았다. 직무는 달라도 동종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 역시 선호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1일 잡코리아가 최근 인사담당자 475명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선호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요인(복수응답)은 '같은 직무의 오랜 근무 경험'(58.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직무가 달라도 '동종업계 경력'(43.6%)을 가진 경우에도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한 회사에서의 오랜 근무 경력'(27.4%),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26.1%), '채용분야의 특정 업무 경험'(25.9%), '인간적인 호감'(25.1%) 등이었다.

반대로 인사담당자의 89.3%는 '경력직 채용시 업무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여도 기피하는 지원자 유형이 있다'고 답했고, 그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없는 지원자'(5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장·허풍이 많아 보이는 유형'(32.8%), '자신의 경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유형'(30.0%), '그다지 입사의지가 없어보이거나'(28.1%), '희망 연봉이 너무 높은 경우'(18.9%), '주의가 산만해 보이는 경우'(16.5%) 순으로 경력직 채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